

재일 동포 아동 학습자를 위한 계승어로서의 한국어교육 현황과 과제

오가와 카즈에
경희대학교

1. 서론

‘재외동포’란 국적을 불문하고 일시 체류자, 영주권자, 시민권자, 이민 2세, 3세 등 외국에 거주하는 한반도의 뿌리가 있는 사람 전체를 이르는 말이다. 그 중에서 일시 체류자를 제외한 재외동포를 위한 한국어교육은 ‘정체성 확립’, ‘모국과 연계’, ‘현지 사회에 동화’, ‘민족의 자산 관리’, ‘세계 시민 교육 또는 한국 언어문화의 세계화’에 목적과 필요성이 있다고 한다.¹⁾

이러한 목적과 필요성에 따라 재외동포를 위한 한국어교육 관련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일 동포를 위한 한국어교육에 대한 연구는 인구수에 비해 연구 논문이 현저히 적다.²⁾ 특히 최근에는 재일 동포 학령기 아동의 약 86%가 일본 공립학교에 다니고 있고³⁾ 대부분의 재일 동포 아동들은 일본어를 주로 사용하며,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접근하는 기회가 많지 않다. 김중섭(2011:628)은 재외동포 이주 역사가 길어질수록 이민 1세대와 달리 2세대, 3세대 재외동포는 한국어 구사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하였다. 현재 재일 동포 아동은 4, 5세대이며 현지에 동화되어가고 있어 재일 동포를 위한 한국어교육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올드커머와 뉴커머, 또한 일본 국적을 가진 재일 동포 등, 재일 동포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매우 다양화되고 복잡해지므로 재일 동포가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다.⁴⁾

현재 재일 동포 아동을 위한 한국어교육은 조선학교, 한국학교, 민족학급, 한글학교⁵⁾에서 주로 진행되고 있다. 김경근·고형일·황기우, 2004에 따르면 한글학교는 정규 교육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현지 공교육에 다니는 재외동포 아동들이 한국어를 배울 수 있게 주말에 진행되고 있는 점, 한국정부에서 운영비 지원, 교재 무상 공급한다는 점에서 접근성이 뛰어난 비정규 교육기관이라고 할 수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대부분의 재일 동포 아동이 일반 공립학교를 다니는 현실에 적합한 형태인 한글학교가 향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은 명백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글학교인 어린이 토요 학교를 대상으로 계승어로서의 한국어교육 현황을 살펴보고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2. 선행 연구

2.1. 계승어로서의 한국어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한 한국어교육 논의에서 한국어에 사용한 용어는 ‘모국어(母國語)’, ‘민족어(民族語)’, ‘계승어(繼承語)’ 등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모국어’는 ‘모어’에 국가 개념을 포함시킨 의미로 모어와 동의어로 사용되기도 한다. 재외동포에게 ‘모국어’는 ‘국가’나 ‘조국’의 개념이 포함되어 자신의 출신국을 의미하는 것인지 부모나 조상의 조국을 의미하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아 적합하지 않다(조태린, 2010, 강승혜, 2013). ‘민족어’는 한 민족이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언어를 말한다. ‘민족어’는 하나의 국가에는 하나의 언어와 민족이라는 개념이 강하다. 그러나 시대가 변하면서 한국어의 세계화를 외치고 있는 현재에 재외동포 한국어교육에 있어서 한국어를 ‘민족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편 최근에 들어 ‘계승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논의하는 연구가 늘어나고 있다(김대희: 2012, 강승혜: 2013, 조태린: 2014 등). 김대희(2012:36-37)는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화자에게는 한국어가 모국어지만 여러 가지 목적으로 외국에서 와서 한국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는 제2언어가 되고, 한국어가 공용어가 아닌 다른 나라에서 개인적인 관심이나 교육과정에 따라 배우는 사람들에게는 외국어이며, 민족교육의 차원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재외동포들에게는 계승어의 성격을 지닌다고 강조하면서 ‘모국어’, ‘제2언어’, ‘외국어’, ‘계승어’ 등의 개념을 구분하였다. 또한 계승어(heritage language)는 지역에서 통용되는 공식적인 언어가 아닌 특정 가족, 공동체 혹은 개인을 연결하는 데 사용하는 언어를 말하며, 이는 외국어(foreign language)나 제2언어(second language)와는 다른 개념으로 계승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사이에는 태생적으로 공유하는 언어 의식이 존재한다고 한다. 즉, ‘계승어’란 다문화 사회에서 국가의 공용어가 아닌 이주자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말하며 언어 접촉이나 국적, 구사 능력과는 상관없이 가족의 뿌리를 알 수 있는 말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계승어(heritage language)’는 1996년에 미국 정부에 의한 ‘National Standards in Foreign Language Education Profession’라는 보고서에서 사용되고 그 후 미국 내 외국어교육에서 공식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Valdez, 2001:38). Joshua Fishman(2001), Guadalupe Valdés(2001), Terrence Wiley(2001), Peyton, Ranard, & McGinnis(2001)는 ‘계승어’를 사회적 상황에서 공식적으로 쓰이는 우세한 언어가 아닌 다른 언어라고 정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계승어(heritage language)’라는 용어의 의미를 토대로 ‘계승어로서의 한국어(Korean as a Heritage Language)’를 용어로 사용하고자 한다.

2.2. 계승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Cummins(1990)는 ‘계승어교육(Heritage Language Education)’을 다른 언어 환경에서 부모의 말과 문화를 키우는 교육이라고 정의한다. 계승어 교육에 해당하는 재외동포를 위한 ‘계승어로서의 한국어교육(Korean Education as a Heritage Language)’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도록 한다.

재외 한글학교에 관련된 연구 중에 최근에는 계승어의 관점에서 재외동포를 위한 한국어교육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강승혜(2013)는 계승어에 대한 개념을 논의하기 위해 관련된 용어를 살펴보고 계승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의 필요성을 재외동포 현황과 배경을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조태린(2014)은 현재까지 개발된 주요 재외동포를 위한 한국어 교육 과정을 계승어 교육의 관점에서 분석하며 문제점을 알아내 계승어로서의 한국어 교육과정의 개발 또는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재외 한글학교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계승어로서의 한국어교육 관련 연구는 주로 미국 또는 영어권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이정희, 2013; 김태진, 2014; 임철성, 2014; 박혜경, 2015; 허소린, 최윤희, 2015).

이정희(2013)는 한글학교에 다니고 있는 재미 동포 미취학 아동이 한국어 학습자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학부모와 교사 인터뷰를 통해 살펴보고 한글학교 유아반 교실 운영에 대한 방안을 제안하였다.

김태진(2014)에서는 재미 동포 학생들은 일반 성인 한국어 학습자와 달리 언어 능력 배양 외, 정체성 확립이라는 목적과 동기로 계승어로서의 한국어를 학습한다고 하여 정체성에 대한 설문조사를 재미 한글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임철성(2014)은 미국 한글학교에서 한국 계승어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이 학습자에게 오류에 대한 피드백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그 결과를 한국어 교육과 연계하여 해석하고 한글학교 계승어 교육에 주는 시사점을 정리하였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재외동포를 위한 한국어 교육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승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논의는 많지 않다. 현재까지 이루어진 논의는 개념이나 방향 및 과제가 많다. 또한 구체적인 연구는 미국이나 영어권 한글학교를 대상으로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3. 어린이 토요 학교 현황 조사

어린이 토요 학교(土曜學校)는 민단과 한국교육원을 중심으로 일본 전국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공립학교에 다니는 재일 동포 아동을 대상으로 토요일에 한국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1993년에 일본 최초로 동경한국 학교에서 어린이 토요학교가 시작되어 민단과 한국교육원 등의 각 지부에서도 어린이 토요 학교가 열리고 있다. 민단 홈페이지에 따르면 2015

년도는 34개 교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민단 홈페이지에 공지되는 2015년도 어린이 토요 학교 분포는 다음과 같다.

<표-1> 2015년도 어린이 토요 학교 분포⁶⁾

지방	명칭	주최
도쿄 (東京)	어린이 토요 학교 도쿄한국학교 교실 (オリニ土曜学校東京韓国学校教室)	도쿄한국학교 (東京韓国学校)
	어린이 토요 학교 동부(아라카와)지역 교실 (オリニ土曜学校東部(荒川)地域教室)	지방본부 도쿄교육원 (地方本部 東京教育院)
	어린이 한글 교실 (オリニハングル教室)	에도가와지부 江戸川支部
	어린이 토요 학교 (オリニ土曜学校)	오타지부 (大田支部)
	어린이 한글 교실 (オリニハングル教室)	가쓰시카지부 (葛飾支部)
	어린이 한글 교실 (オリニハングル教室)	시나가와지부 (品川支部)
	어린이 토요 학교 (オリニ土曜学校)	네리마지부 (練馬支部)
가나가와 (神奈川)	토요 학교 (土曜学校)	가나가와 한국종합교육원 (神奈川韓国綜合教育院)
지바 (千葉)	지바한국교육원 어린이 토요 학교 (千葉韓国教育院オリニ土曜学校)	지바한국교육원 (千葉韓国教育院)
야마나시 (山梨)	어린이 토요 학교 (オリニ土曜教室)	야마나시현본부 (山梨県本部)
이바라키 (茨城)	어린이 한글 강좌 (オリニハングル講座)	이바라키본부 (茨城県本部)
사이타마 (埼玉)	어린이 토요 학교 (オリニ土曜学校)	사이타마현본부 사이타마한글학교 (埼玉県本部さいたまハングル学校)
시즈오카 (静岡)	친자문화스쿨 (親子文化スクール)	시즈오카현본부 (静岡県本部)
나가노 (長野)	민단 나가노 어린이 토요 학교	나가노현본부 (長野県本部)

	(民団長野オリニ土曜学校)	
니가타 (新潟)	민단 니가타 어린이 교실 (民団新潟オリニ教室)	니가타현본부 (新潟県本部)
미야기 (宮城)	한글학교 미야기 (ハングル学校宮城)	미야기현본부 (宮城県本部)
홋카이도 (北海道)	어린이 토요 학교 (オリニ土曜学校)	홋카이도한국학원 삿포로한국교육원 (北海道韓国学園 札幌韓国教育院)
	아사히카와지부 한글 학교 (旭川支部ハングル学校)	아사히카와지부 한글학교 (旭川支部ハングル学校)
아이치 (愛知)	나고야 한국학교 초등부 (名古屋韓国学校初等部)	나고야한국학교 (名古屋韓国学校)
오사카 (大阪)	이쿠노미나미 어린이 한글 교실 (生野南オリニハングル教室)	이쿠노미나미한국어학원 (生野南韓国語学園)
	야오 어린이방 (八尾オリニバン)	야오지부 (八尾支部)
	휴세 어린이방 (布施オリニバン)	후세지부·히가시오사카NPO법인 공생넷워크 (布施支部・東大阪NPO法人共生 ネットワーク)
	히가시나리 토요 민족학교 (東成土曜民族学校)	히가시나리지부 (東成支部)
	이쿠노한국학원 코리아안아카데미 (生野韓国学園コリアンアカデミ ー)	이쿠노한국학원 코리아안아카데미 (生野韓国学園コリアンアカデミ ー)
효고 (兵庫)	아마가사키 어린이 토요 학교 (尼崎オリニ土曜学校)	아마가사키 한국학원 (尼崎韓国学園)
	니시코베 어린이 토요 학교 (西神戸オリニ土曜学校)	니시코베지부 (西神戸支部)
교토 (京都)	어린이 토요 학교 (オリニ土曜学校)	민단 교토본부 교토한국교육원 교토국제학원 (民団京都本部京都韓国教育院 京都国際学園)
나라	어린이 토요 학교	나라현본부

(奈良)	(オリニ土曜学校)	(奈良県本部)
와카야마 (和歌山)	어린이 토요 학교 (オリニ土曜学校)	와카야마 어린이 한글학교 (和歌山オリニハングル学校)
오카야마 (岡山)	어린이 토요 학교 (オリニ土曜学校)	오카야마현본부 (岡山県本部)
야마구치 (山口)	토요 학교 (土曜学校)	각지부 (各支部)
후쿠오카 (福岡)	어린이 토요 학교 (オリニ土曜学校)	모지지부 (門司支部)
가고시마 (鹿児島)	함께 말하자 한국어 (共に話そう 韓国語)	가고시마현본부 (鹿児島県本部)
오кина와 (沖縄)	어린이 토요 학교 (オリニ土曜学校)	오кина와현본부 (沖縄県本部)

법무성(法務省)이 2014년 12월 말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일본 국내 지역별 한국 및 조선국적의 재류외국인 분포는 오사카(大阪) 114,373명, 도쿄(東京) 96,193명, 효고(兵庫) 46,680명, 아이치(愛知) 35,114명, 가나가와(神奈川) 29,880명, 교토(京都) 28,265명의 순으로 많고, 이 6개 현이 총계 350,505명으로 제일 동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특히 이 6개 현 중에서 오사카, 효고, 교토의 3군데는 관서지방(關西地方)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관서지방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 토요 학교 중 다음 7군데(이쿠노미나미 어린이 한글교실, 야오 어린이방, 후세 어린이방, 히가시나리 어린이방, 아мага사키 어린이 토요 학교, 교토 어린이 토요 학교 2군데)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4. 계승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현황 설문조사 결과

본 연구의 설문조사는 2015년 9월 5일부터 10월 10일까지 오프라인 설문조사를 하였다. 설문지는 김경근 외(2008), 박혜경(2015), 안수정(2012, 2015)의 연구를 참고로 하였다. 설문조사에 응답하는 대상은 한국어교육 기관, 교사, 학부모이다. 운영기관 총 7군데, 교사 총 11명, 학부모 총 51명이 응답하였다. 설문지 응답 내용이 본 연구에 적절하지 않거나 응답자가 없는 것에 대해서는 제외하여 조사 결과를 보겠다.

4.1. 어린이 토요학교 교육기관 조사 결과

본 연구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응답해 준 교육기관은 총 7군데이다.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응답한 기관명이 밝히지 않는다는 동의하에 응답해

주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교육기관을 A-G로 표기한다. 설문조사는 크게 네 가지로 구성하였다. 1) 기초설문, 2) 어린이 한국어 수업, 3) 한국어교사, 4) 수업 운영의 개선으로 구성하였다.

1) 기초설문

먼저 수업을 진행하는 요일과 횟수, 학교가 개설된 연도에 대한 질문이다. 각 학교의 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표-2> 어린이 한국어 교실 현황

	수업 진행 요일	한 달에 수업 횟수	교실 개설 연도
A	토요일	4회	2002년도
B	토요일	1-2회	2014년도
C	토요일	4회	2010년도
D	토요일	2회	1998년도
E	월요일	4회	불명
F	토요일	4회	2014년도
G	토요일	4회	2012년도

E를 제외한 모든 교실이 매주 토요일에 진행되고 있다. 평일에는 학교를 다니는 관계로 주말인 토요일에 진행된다. 한 달에 진행하는 수업 횟수는 B와 D를 제외한 나머지는 일주일에 한 번 수업을 하고 있으며 한 달에 네 번 수업이 진행되고 있다. B는 한 달에 한두 번이고, D는 한 달에 두 번 수업을 하고 있다.

학교 개설 연도를 보면 D가 가장 역사가 길어 1998년도에 개설되었다. 다음으로 역사가 긴 학교는 A이다. A는 2002년에 개설되며, A, D는 10년 이상 운영되고 있다. 나머지 B, C, F, G는 개설된 지 5년 미만이다. C가 2010년도, G는 2012년도, B와 F는 2014년도의 순으로 개설되었다. 그리고 E는 역사는 길다고 하나 정확한 개설 연도는 불명확하다고 한다. 아무래도 2000년에 들어 제일 동포 아동학습자를 위한 계승어로서의 한국어교육의 수요가 생긴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어린이 한국어 수업이 개설된 기간과 학생의 추이는 다음 표와 같다.

<표-3> 학생 추이

	A	B	C	D	E	F	G
2002년도	31	-	-			-	
2003년도	16	-	-			-	
2004년도	12	-	-			-	

2005년도	13	-	-			-	
2006년도	10	-	-			-	
2007년도	10	-	-	45		-	
2008년도	10	-	-	51		-	
2009년도	8	-	-	64		-	
2010년도	8	-	17	30		-	
2011년도	3	-	23	14	14	-	
2012년도	4	-	22	26	10	-	13
2013년도	6	-	18	33	8	-	17
2014년도	5	14	20	28	8	23	22
2015년도	5	18	25	27	5	18	25

D는 1998년도부터 학교가 운영되고 있으나 학생 인원수의 기록은 2007년도부터만 있어 1998년도부터 2006년도 기록은 없다. 그리고 E는 개설 연도가 불분명하며 학생 인원수의 기록이 2011년도부터만 있다.

A와 D, E는 학교가 개설되었을 때부터 학생이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최근에는 일정한 인원수를 유지하고 있다. 일정한 학생이 유지되는 것은 재일 동포 아동학습자를 위한 한국어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현재 수강생의 학령에 대한 질문에 응답이다.

<표-4> 학생 학년

		A	B	C	D	E	F	G
유아		1	13	3	1	-	-	2
소학교	1학년	-	3	2	-	1	-	2
	2학년	-	-	3	4	-	2	1
	3학년	-	1	4	6	-	4	3
	4학년	1	-	3	5	3	3	8
	5학년	-	-	5	7	-	7	6
	6학년	-	1	1	5	1	2	2
중학생		3	-	3	-	-	-	1
고등학생		-	-	1	-	-	-	0
계		5	18	25	28	5	18	25

학생의 학년이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C와 D, F 같은 경우는 유아부터 고등학생까지 골고루 있거나 비슷한 연령층이 모여 있기 때문에 수업 구성하기에 큰 어려움은 없다고 보인다. 그러나 다른 교실은 나이 차이가 커도 인원 관계로 수업을 같이 진행해야 할 수도 있어 효율적인 수업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2) 어린이 한국어 수업

다음으로 어린이 한국어 수업에 관한 설문에 대한 응답 결과이다. 먼저 시간표와 수업 내용을 살펴보겠다. 각 학교에서 진행하는 수업의 시간표/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5> A-시간표

교시	시간	과목명	내용
1교시	14:00-	한국어	카드놀이, 단어를 사용하는 한국어수업
2교시	16:00-	민속무용	민속춤과 악기(북, 장고, 가야금)

<표-6> B-시간표

교시	시간	과목명	내용
1교시	10:00-10:40	입문1	-
2교시	10:50-11:30	입문2	-

<표-7> C-시간표

교시	시간	과목명	내용
1교시	10:00-10:50	자율학습	학교 숙제 혹은 기관에서 준비한 드릴
2교시	11:00-12:00	한국어	-
3교시	12:00-13:00	점심	-
4교시	13:00-14:00	한국악기, 노래	장구, 사물놀이

<표-8> D-시간표

교시	시간	과목명	내용
1교시	09:40-10:30	한글교실	한글

2교시	10:40-11:30	한국문화	한국놀이, 전통의상 및 예의, 요리, 역사
3교시	11:40-12:10	특별활동	테니스, 축구 등
4교시	12:15-	점심	-

<표-9> E-시간표

교시	시간	과목명	내용
1교시	16:30-17:15	한글	단어

<표-10> F-시간표

교시	시간	과목명	내용
1교시	09:15-10:00	한국어	-
2교시	10:15-11:00	영어	-
3교시	11:15-12:00	민족총합	-
4교시	12:05-12:35	점심	-

<표-11> G-시간표

교시	시간	과목명	내용
1교시	10:30-11:30	한국어	단어, 회화
2교시	11:30-12:30	장구	장구 연습
3교시	13:00-14:00	자율학습	학교 숙제 등 자율학습

어린이 토요일 학교의 시간표를 보면 각 학교마다 수업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수업 시간부터 알아보면 A는 수업 시간이 불명하고, B는 40분, C는 60분, D는 50분, E와 F는 45분으로 설정되어 있다. 그리고 수업 과목을 보면 B는 한국어 수업을 수준별로 1교시, 2교시로 나누고 있으며 A와 C, D, F는 한 수업에서 ‘한국어’를 하고 한 수업에서 ‘무용’, ‘노래’ 등 한국 문화에 관련하는 과목으로 따로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에 관련 없는 영어나 자율학습, 특별활동을 실시하는 학교도 있고 점심을 제공하는 교실도 있다. 토요일에 운영되는 점에서 한국어수업에서는 한국어만 하고 다른 시간에 한국 문화나 한국과 관련이 없는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매우 특이한 점이다. 다른 과목도 구성되는 것, 그 중에서 C, D, F는 점심까지 제공하는 것을 보면 어린이 토요일 학교가 보육시설(학동보육소)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어린이 한국어 수업을 진행하는 목적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다. 운영기관에서 어린이 한국어 수업을 진행하는 데 삼은 목적은 다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어린이들의 정체성 확립, 둘째, 한국에 대한 관심 유발, 셋째, 한국어 능력의 신장, 넷째,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접촉하는 기회 제공이다. 각 운영기관이 삼은 목적을 다음 표와 같이 정리하였다.

<표-12> 어린이 한국어 수업의 목적

어린이 한국어수업의 목적	
A	어린이들의 정체성 확립
B	어린이들의 정체성 확립 한국어 능력의 신장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접촉하는 기회 제공
C	어린이들의 정체성 확립
D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접촉하는 기회 제공
E	-
F	어린이들의 정체성 확립 한국어 능력의 신장
G	민족교육과 한국에 대한 자긍심

어린이 한국어 수업의 목적으로 가장 많은 것은 ‘어린이들의 정체성 확립’이며 다음으로 ‘한국어 능력의 신장’과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접촉하는 기회 제공’이다. 이 3 가지는 일본 생활에 동화화된다는 점에서 나온 목적이라고 볼 수 있다. 현재 대부분의 재일 동포 아동들은 이름만 한국 이름이지 생활은 일본 아동들과 별 차이가 없다. 일본 현지 공립 학교에 다니고 집안에서도 일본어를 사용하는 환경에 있어 자신에게 한국이라는 뿌리가 있다는 것을 느낄 기회가 없다. 그러므로 한국어교육, 한국문화교육을 통해 정체성 확립과 이중언어교육으로 한국어/ 한국문화에 접촉하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한다. 이는 바로 계승어로서의 한국어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학생과 학부모는 한국어교육에 대한 만족도를 모든 운영기관이 ‘대체로 만족한다’고 평가하였다. <표-3> 학생의 추이에서 학생이 기본적으로 일정한 인원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을 보면 학생과 학부모가 만족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학생 및 학부모가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배우는 것에 의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3) 한국어교사

다음으로 한국어 교사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본다. 먼저 각 기관에서 현재 수업하는 교사의 제1언어(우세언어)는 다음 표와 같다.

<표-13> 교사의 제1언어(우세언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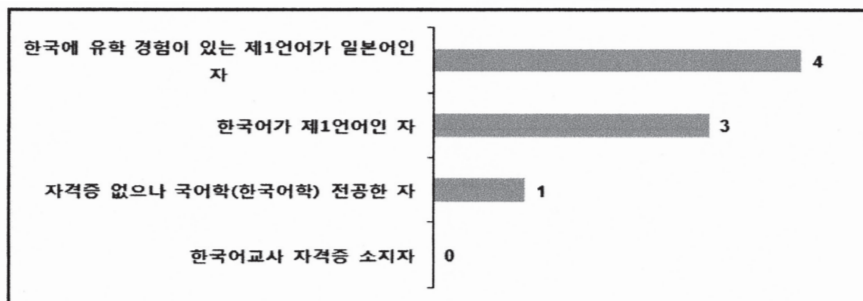
	한국어	일본어	이중언어화자	계
A	3	0	0	3
B	0	2	0	2
C	0	2	1	3
D	2	0	0	2
E	1	0	0	1
F	0	2	0	2
G	1	1	1	3
총계	7	7	2	16

A에서 가르치는 교사는 제1언어가 한국어인 교사가 3명 있고 일본어, 이중언어화자인 교사는 없다. B와 C, F에서 가르치는 교사는 제1언어가 한국어, 이중언어화자인 교사는 없고 일본어인 교사가 2명 있다. D에서 가르치는 교사는 제1언어가 한국어인 교사가 2명 있고 일본어, 이중언어화자인 교사는 없다. G에서 가르치는 교사는 제1언어가 한국어인 교사가 1명 있고 일본어인 교사가 1명, 이중언어화자인 교사가 1명 있다.

대부분의 기관은 제1언어가 한국어인 교사만 있거나 일본어인 교사만 있다. 이 부분에서는 제1언어가 일본어인 교사만 있는 경우, 수업 시간에서 자연스러운 한국어를 사용하기에 어려움이 있거나 일본어로 수업을 진행하여 한국어에 접촉하는 기회가 적다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경우 한국어가 제1언어인 교사가 각 기관에 1명이라도 배치될 수 있게 구성하면 좋을 것이다. 그렇게 해야 교사의 기술 성장에도 어린이학습자에게도 좋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음으로 한국어 수업하는 교사의 한국어 수준에 대한 응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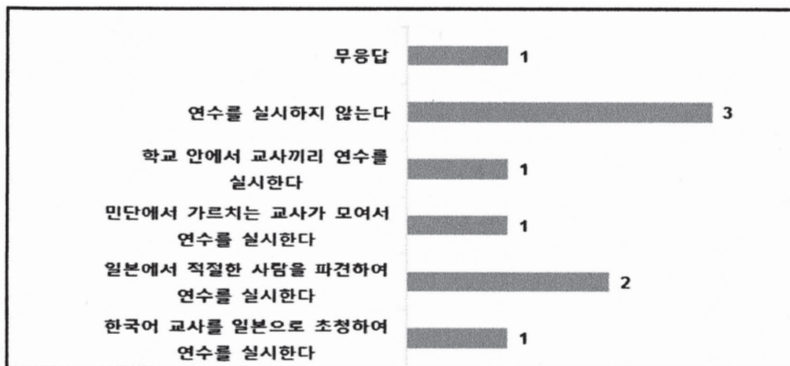
<표-14> 한국어 교사 수준



7군데 운영기관 중 4군데는 한국에 유학 경험이 있는 제1언어가 일본어인 교사가 적절하다고 하였다. 학습자가 아동이라는 점에서 교사와 학생이 신뢰 관계를 긴밀하게 구축하는데 일본어로 소통이 가능한 교사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 다음에 한국어가 제1언어인 교사가 적절하다고 한다. 그러나 국어학(한국어학) 전공한 교사와 한국어 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교사 같은 한국어교육의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교사에 중요성을 생각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강사마다 유학경험, 한국어 학습 경력에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강사의 수준을 일정하게 하여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 그러므로 연수가 중요하다. 다음 연수형태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표-15> 현재 한국어교사 연수 형태(중복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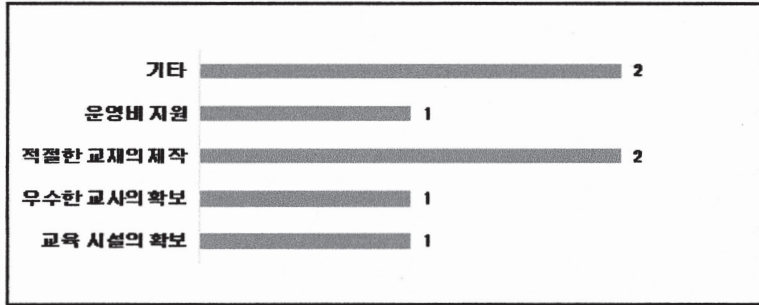


3 군데가 교사의 연수를 실시하지 않고 2 군데가 일본에서 적절한 사람을 파견하여 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학교 내에서 연수를 실시한다는 기관과 민단에서 가르치는 교사가 모여서 연수를 한다는 기관, 그리고 한국에서 한국어 교사를 초청하여 연수를 한다는 학교가 1 군데씩 있다. 또 무응답이 1 군데 있다. 이는 학교마다 어린이 한국어 교육의 수준 차이가 큰 것을 알 수 있다. 전체적으로 제일 동포 아동을 위한 한국어교육의 질을 더 높이기 위해서 어린이 토요 학교를 운영하는 기관이 모여 정기 연수를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육의 질 차이가 크지 않게, 서로 성장할 수 있게 연수와 정보를 교환하는 자리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4) 수업 운영의 개선

앞으로 어린이 한국어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 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표-16> 어린이 한국어 수업 개선점



교육기관이 생각하는 개선점은 교재와 기타가 많고 다음으로 운영비와 교사, 교육 시설이었다. 기타를 선택한 응답에는 재일 동포 아동을 위한 한국어 교육과정 개발과 그들에 맞는 교재 및 지도서라는 의견이었다. 재일 동포 아동 학습자를 위한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그에 맞는 교재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계승어로서의 한국어교육이 조금씩 주목을 받아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일본 현지에 맞는 교육과정과 아동을 대상으로 제작된 교재가 많지 않다.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통해 현재 수업 형태와 학생 인원수를 살펴보고 재일 동포 아동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교육이 필요하면서도 교육과정, 교재, 교사 연수 등에 연구가 필요한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토요 학교 특성상 토요일에 소학교 행사가 있는 경우 수업을 못 한다고 하여 수업을 유동적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 1년에 반드시 소화되어야 하는 수업 횟수, 학기 종료시에 달성해야 하는 목표 등을 기관들과 연계하여 수업을 일정하게 진행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또한 교재는 아동 학습자가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칼라 교재나 그림으로 흥미를 일으켜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1주일에 한번 수업하거나 못 하거나 하기 때문에 복습할 수 있게 교재와 같이 연습 문제를 개발하는 것이 좋다.

4.2. 어린이 토요학교 교사의 설문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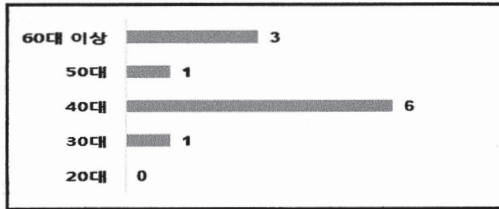
설문조사를 실시한 운영기관 7 군데에 16 명의 교사가 있는 것을 알았다. 그 중에서 설문조사에 응답해준 교사는 총 11 명이다. 교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도록 한다.

1) 기초설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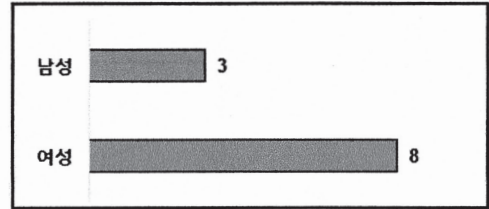
먼저 응답해준 교사들 11명에 성별과 연령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응답한 교사의 연령은 30대 1명, 40대 4명, 50대 1명, 60대 이상 2명이다. 교사의 연령은 40대가 가장 많고 그 다음에 60대가 많다. 그리고 성별

은 남성이 3명, 여성이 8명으로 남성보다 여성이 많다.

<표-17> 교사의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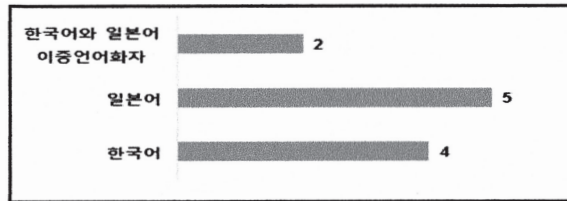


<표-18> 교사의 성별



다음으로 교사의 제1언어는 다음과 같다. 교사 11명 중, 제1언어(우세 언어)가 한국어인 교사는 4명이며, 일본어는 5명, 한국어와 일본어의 이중언어 화자는 2명이다.

<표-19> 교사의 제1언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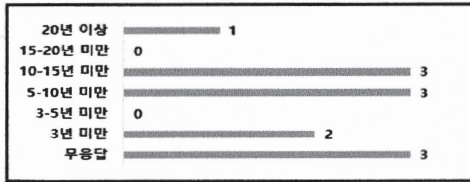
다음은 학부 혹은 대학원에서 전공에 관한 질문이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국어 수업을 진행하는 데 전공이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학과는 ‘국어국문과(한국어학과)’와 ‘아동교육학과’, ‘유아교육학과’라고 볼 수 있다. ‘국어국문과(한국어학과)’를 전공한 교사는 2명이고 ‘아동교육학과’를 전공한 교사가 1명, 나머지 8명은 그 외의 학과를 전공하였다. 그리고 기타에서 민족학교 출신인 교사가 1명이다.

이어서 어린이 한국어 수업을 진행하는 데 관련하는 자격증의 소지 현황에 대한 질문을 하였다. 교사 11명 중에서 일본 소등학교 교사 면허를 소지하는 교사가 3명이고 보육사 자격증 혹은 유치원 교사 면허를 소지하는 교사가 1명이다. 그리고 한국어 교사 2급을 소지한 교사가 1명이다. 자격증 혹은 면허는 유아, 아동 교육 관련된 것을 소지하는 교사가 많다는 점은 아동을 대상으로 한국어교육을 교수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다. 반면 한국어 교사 자격증을 소지하는 교사는 1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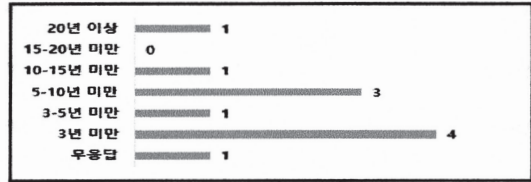
다음은 한국어교사의 경력에 관한 설문에 결과이다. 한국어 교사 경력이 3년 미만인 2명, 5-10년 미만 교사가 3명, 10-15년 미만이 3명, 20년 이상이 1명, 무응답이 3명이었다. 전체적으로 한국어 교사 경력은 긴 교사가 많다. 한국어를 가르치는 데 기본적인 능력은 갖추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어 교사의 경력과 어린이 한국어교사의 경력을 나누

어 조사한 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표-20> 한국어 교사 경력



<표-21> 어린이 한국어 교사 경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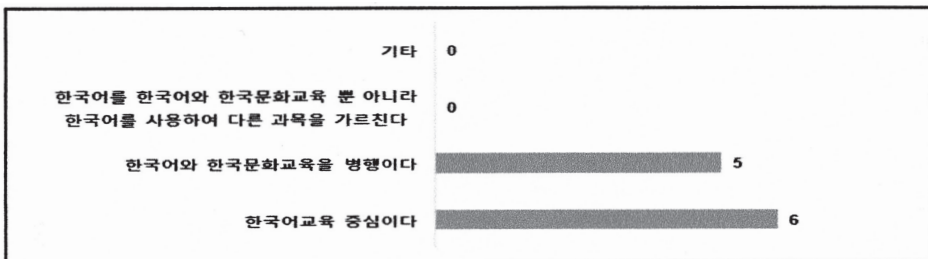


어린이 한국어 교사 경력에 대한 응답은 교사 11명 중, 응답하지 않은 교사가 1명, 3년 미만이 4명, 3-5년 미만이 1명, 5-10년 미만이 3명, 25년이 1명이라는 결과이다. 아동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국어 교사 경험은 한국어 교사 경험에 비교해 짧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어 교사 경험에 교사마다 차이가 있으니 전체적으로 일정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 통일한 교육과정, 연수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2) 교재.교육과정

현재 진행하는 수업의 형태에 대한 질문을 한 결과이다. 한국어교육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응답한 교사는 문화는 다른 수업 시간에 진행하고 있어 한국어수업 시간에는 진행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를 고려하면 모든 교사가 수업(한국어 수업 외 문화수업 포함)에서 한국문화를 가르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시간표를 보면 한국 문화를 다른 시간에 진행하고 있는 교육기관인 경우 무용, 악기 등 실기 과목을 한 종류만 교수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어 수업 시간에 전체적인 한국 문화를 교육과정에 넣을 것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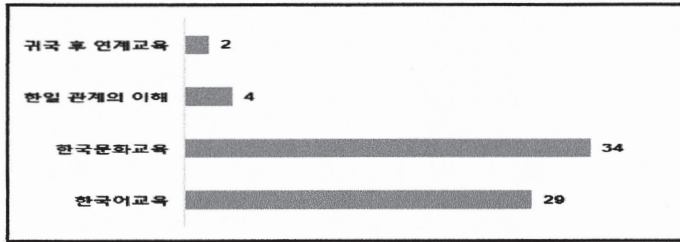
<표-22> 현재 수업 형태



다음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수업에서 강조하는 교육내용에 대한 질문이다. 질문에 대한 선택 중 '기타'를 제외한 나머지 선택에서 1위에 4점, 2위에 3점, 3위에 2점, 4위에 1점으로 점수를 매겨서 나온 결과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어린이 수업에서 강조한 교육내용은 '한국문화교육'이 가장 많고 다음은 '한국어교육'이 많다. 이 밖으로 '기타'를 선택한 것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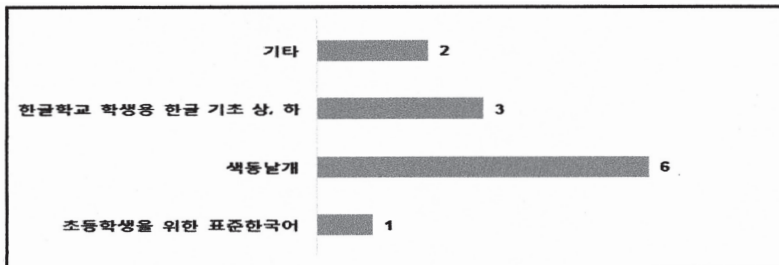
서는 정체성 확립과 역사교육이 있었다.

<표-23> 어린이 한국어수업에서 강조한 교육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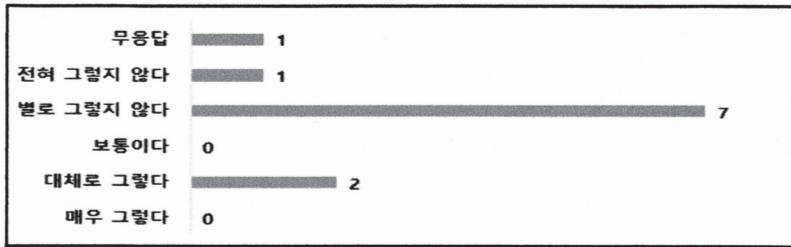
다음으로 현재 수업에서 사용하는 교재에 대한 응답이다. 오사카한국교육원과 재일본대한민국민단 오사카지방본부에서 발간된 ‘색동날개’ 혹은 국립국제국어원에서 발간된 ‘한글학교 학생용 한글 기초 상, 하’를 사용하는 교사가 대부분이다. 기타를 선택한 교사 1명은 책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며, 또 1명은 직접 제작하는 교재를 사용한다고 응답하였다. 교재는 교육과정을 반영하기 때문에 각 학교마다 사용하는 교재가 다르다는 것은 교육과정도 다르다는 것이다.

<표-24> 현재 수업에서 사용하는 교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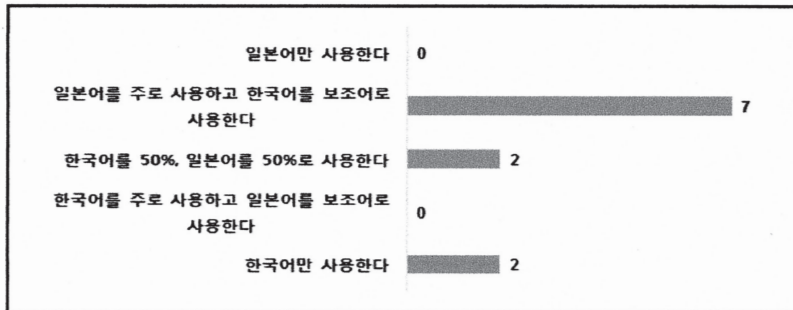
이어서 현재 사용하는 교재의 내용과 수준은 학생을 가르치는 데 적절한가에 대한 질문이다. 대부분의 교사가 현재 사용하는 교재가 어린이 토요 학교에서 수업하기에 별로 적절하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교재는 교육과정을 구체적으로 반영시키는 것이며 그들을 위한 한국어 교육과정을 앞으로 개발하는 데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응답 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표-25> 교재의 적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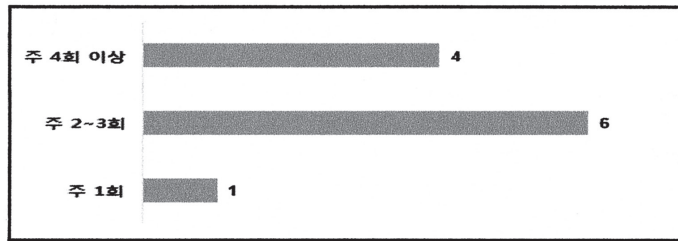
다음으로 수업 시간 중 설명이나 지시할 때 사용하는 언어에 대한 질문의 응답이다. 한국어만 사용한다고 응답한 교사는 2명, 일본어와 한국어를 50%로 사용한다는 교사는 2명, 주로 일본어를 사용하고 보조어로 한국어를 사용한다고 응답한 교사가 7명이다. 대부분의 교사가 일본어를 주로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수업 시간에 학습자가 한국어를 접촉하는 기회가 적다는 것이다. 이 부분은 한국어 수업 시간에 최대한 많이 한국어에 접촉하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국어를 많이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표-26> 수업 시간에 사용하는 언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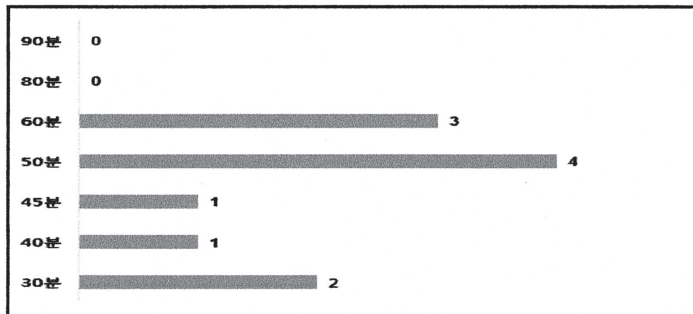
다음으로 한국어 수업에 있어서 일주일에 적당한 수업 횟수와 수업의 시간에 대한 응답이다. 일주일에 실시하는 수업 횟수는 4명이 주 4회 이상이라고 응답하였고, 6명이 2-3회라고 응답하여 가장 많았다. 그리고 1명이 1회라고 하였다. 현재 진행하는 수업은 대부분 일주일에 한 번 수업을 하고 있다. 이에 비해 교사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수업 횟수는 한 두 번 수업을 더 하는 것이다. 언어는 많은 시간 접촉하는 것이 좋으나 학부모 입장에서 보면 어려울 수도 있다. 학부모가 생각하는 수업 횟수는 4.2.3에서 살펴보도록 한다.

<표-27> 적절한 수업 횟수



그리고 한 수업의 적절한 시간에 대한 응답이다. 30분이 2명, 40분이 1명, 45분이 1명, 50분이 4명, 60분 3명이 적절하다고 하였다. 학습자가 아동이라는 점에서 한 수업에 60분을 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이다. 일본 공립 소등학교의 수업 시간이 45분으로 설정되어 있다. 따라서 소등학교에 다니는 아동 학습자 수업은 45분을 기준으로 하고, 일주일에 한 번이라는 수업 횟수를 고려하면 45분부터 60분 정도로 설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그리고 유아 학습자는 소등학생보다 집중력이 짧기 때문에 유아만 있는 수업인 경우 30분부터 45분 사이가 적절할 것이다.

<표-28> 적절한 수업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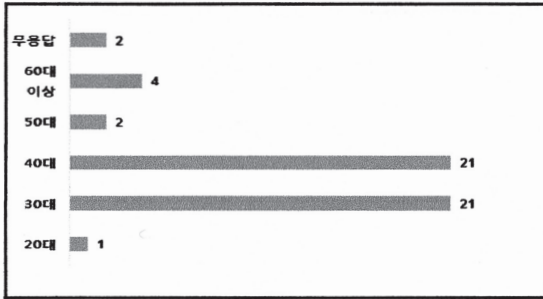
4. 3. 제일 동포 학부모 요구분석

현재 어린이 토요 학교에 다니는 아동 학습자의 학부모 51명이 설문 조사에 협조해주었다. 먼저 기초 설문 응답부터 살펴보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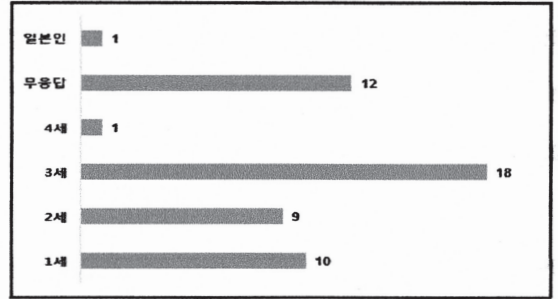
1) 기초설문

응답한 학부모의 연령과 이민의 역사에 대한 설문 결과부터 보도록 한다. 학부모의 연령은 30대가 17명, 40대가 17명, 50대가 1명, 60대가 1명, 무응답이 2명이다. 그리고 학부모의 이민 역사는 1세가 6명, 2세가 3명, 3세가 16명, 무응답이 12명, 일본인이 1명이다. 이민 역사 3세가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표-29> 학부모의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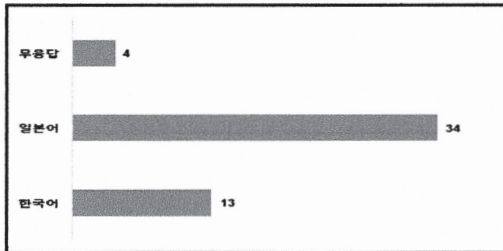


<표-30> 학부모의 이민 역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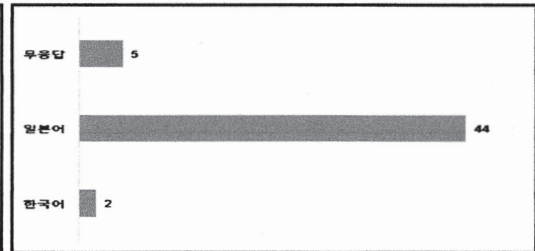


다음으로 학부모의 제1언어와 자녀의 제1언어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도록 한다. 학부모의 제1언어가 한국어가 13명, 일본어가 34명, 무응답이 4명이다. 자녀의 제1언어는 한국어가 2명, 일본어가 44명, 무응답이 5명이다. 부모의 제1언어가 한국어라도 자녀는 현지어인 일본어가 제1언어인 경우가 대부분이라 자녀의 제1언어도 일본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일본 공립학교에 다니는 현실에서 일본생활에 동화화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표-31> 학부모의 제1언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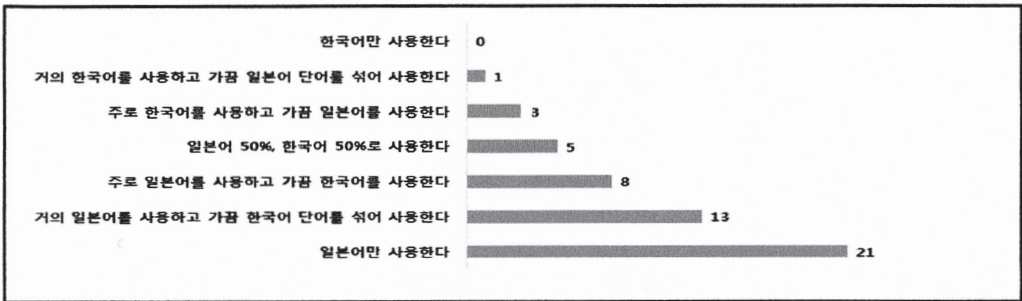


<표-32> 자녀의 제1언어



다음에는 집안에서 사용하는 언어에 대한 결과를 보도록 한다. 집안에서 일본어만 사용한다고 응답한 학부모는 21명, 거의 일본어를 사용하고 가끔 한국어 단어를 섞어 사용한다고 응답한 학부모는 13명, 주로 일본어를 사용하고 가끔 한국어를 사용한다고 응답한 학부모는 8명, 일본어와 한국어를 50%로 사용한다고 응답한 학부모는 5명, 주로 한국어를 사용하고 가끔 일본어를 사용한다, 그리고 거의 한국어를 사용하고 가끔 일본어 단어를 섞어 사용한다고 응답한 학부모가 각 1명씩이다. 대부분의 집안에서는 주로 일본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한국어는 많이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33> 집안의 사용언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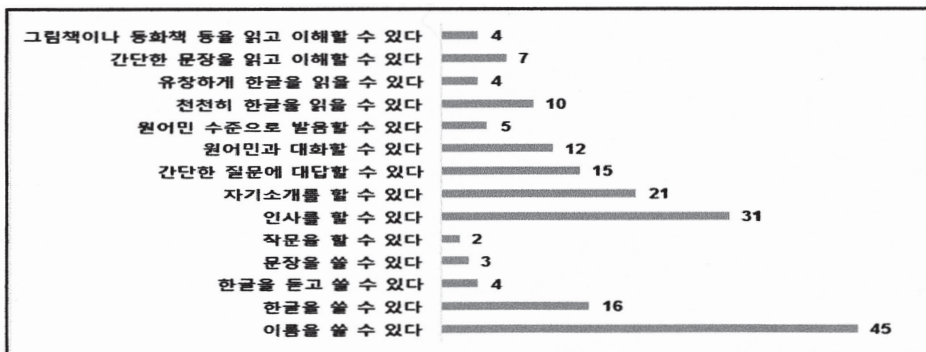


다음은 자녀의 한국어 능력에 관한 질문의 응답 결과이다. 자녀의 한국어 능력에서 가능한 것을 모두 선택하는 형태로 조사하였다. 응답한 51명의 학부모 중 45명이 자기 자녀가 한글로 이름을 쓸 수 있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제대로 한글을 쓸 수 있다고 응답한 학부모는 16명밖에 없다. 이는 반 이상의 자녀가 한글을 쓸 수 없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많은 것이 ‘인사를 할 수 있다’이며 31명이 응답하였다. 다음으로 ‘자기소개를 할 수 있다’가 21명이고 그 다음은 ‘간단한 질문에 대답할 수 있다’가 15명이다. 말하기, 듣기 능력에 비해 쓰기, 읽기 능력이 부족하다. ‘한국어를 듣고 쓸 수 있다’는 4명, ‘문장을 쓸 수 있다’는 3명, ‘작문을 쓸 수 있다’는 2명밖에 없어 쓰기 능력이 약하다.

그리고 읽기 능력은 ‘천천히 한글을 읽을 수 있다’가 10명이고 ‘유창하게 한글을 읽을 수 있다’는 4명, ‘간단한 문장을 읽고 이해할 수 있다’는 7명, ‘그림책이나 동화책을 읽고 이해할 수 있다’는 4명으로 쓰기 능력보다는 읽기 능력이 높다고 평가한 부모가 많으나 듣기, 말하기 같은 대화 능력보다는 읽기 능력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수업에서 쓰기, 읽기에 관한 학습을 강화하여 네 가지 기능을 골고루 학습할 수 있도록 교수할 것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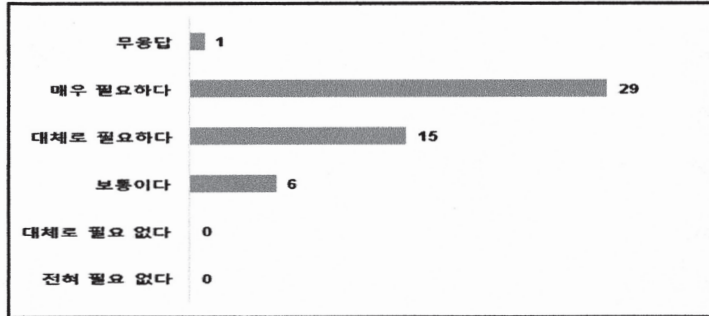
<표-34> 자녀의 한국어 능력



2) 어린이 한국어수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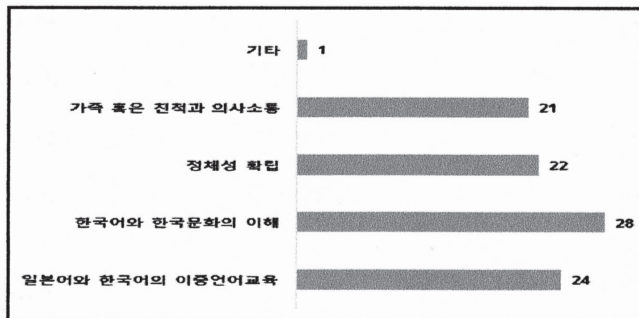
먼저 자녀의 한국어를 학습하는 필요성에 대한 학부모의 의견을 조사한 결과를 보도록 한다. 학부모 51명 중 29명은 자녀가 한국어를 학습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하며, 15명이 대체로 필요하다고 하고 6명이 보통이라고 하였다.

<표-35> 한국어를 학습하는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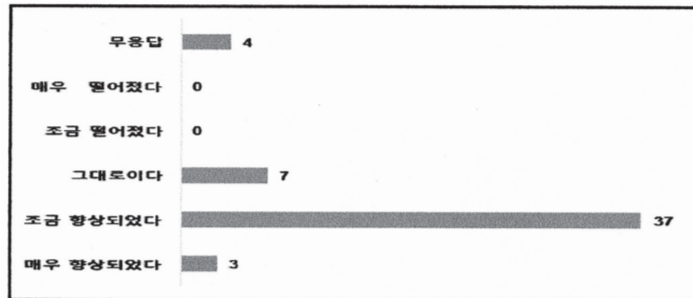
그 다음으로 자녀가 한국어를 학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한 질문의 응답이다. 결과를 보면 가장 많은 이유는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이며 28명이 응답하였다. 그 다음으로 많은 것은 ‘이중언어교육’으로 24명이 응답하였다. 이는 글로벌사회를 살아가기 위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그리고 ‘정체성 확립’이 22명이며 ‘가족 혹은 친척과 의사소통’이 21명이다. 기초설문을 보면 대부분은 집안에서 일본어를 사용하며, 거의 모든 자녀의 제1언어가 일본어인 것을 보면 현지화가 되어가며 국적이나 이름만 한국인일뿐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필요성을 느끼는 학부모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가족 혹은 친척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한국어를 학습한다는 것은 부모가 이민 1세, 2세 같은 경우 부모, 그리고 친척과 소통하기 위해서 학습하는 것에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기타를 선택한 1명은 자녀가 한국어 학습하는 것을 원한다고 한다. 이는 자녀 스스로가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다.

<표-36> 자녀가 한국어 학습하는 필요성에 대한 이유(중복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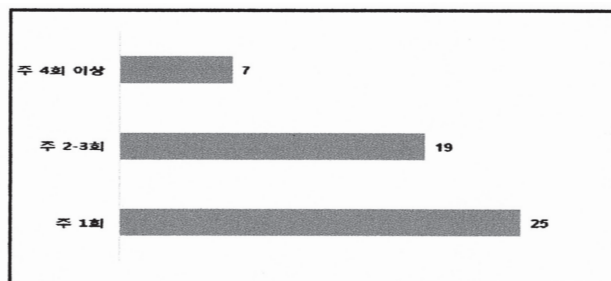
다음은 자녀가 어린이 한국어 수업을 수강하고 나서의 한국어 능력 변화에 대한 조사결과이다. 자녀의 한국어 능력이 매우 향상되었다고 응답한 학부모가 3명, 조금 향상되었다고 응답한 학부모가 37명이다. 대부분의 자녀가 어린이 한국어 수업을 수강하고 나서 자녀의 한국어 능력이 향상되었다고 평가하였다. 그러나 7명이 자녀의 한국어 능력이 그대로라고 평가한 점은 수업 횟수, 시간을 고려하여 좀 더 효과적인 수업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표-37> 자녀의 한국어 능력 향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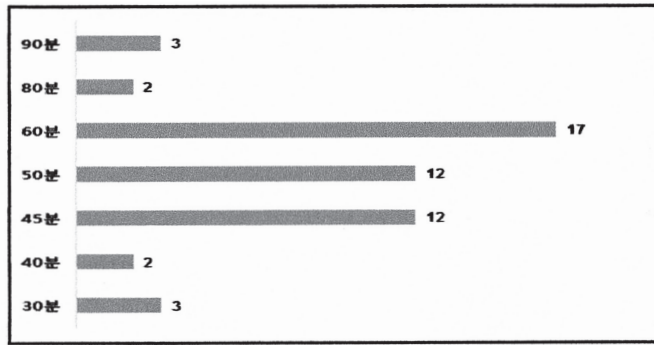
다음으로 일주일에 수업 횟수와 수업 시간에 대한 질문의 응답을 보도록 한다. 학부모의 51명 중 절반인 25명이 수업을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하였다. 그 다음 많은 응답은 일주일에 두, 세 번이며, 일주일에 네 번이 적절하다고 응답한 학부모는 7명이다. 교사 대상 설문조사 결과<표-38>는 주 2-3회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에는 주 4회, 주 1회 순으로 많았으나 학부모의 응답과 차이가 있다.

<표-38> 적절한 수업 횟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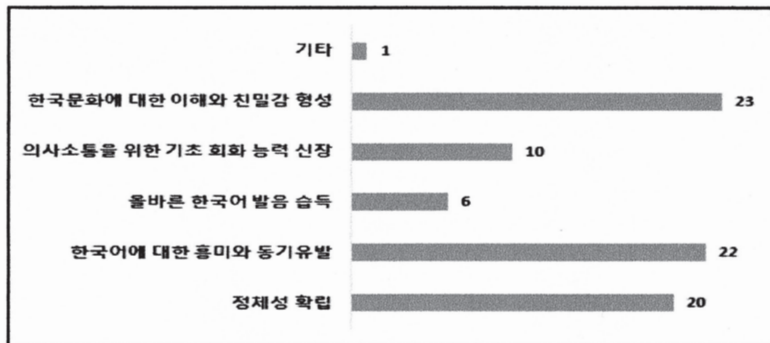
수업 시간에 대한 질문 결과는 60분이 17명, 45분, 50분이 12명, 30분, 90분이 3명, 40분, 80분이 2명이다. 교사 대상 설문조사 <표-39>과 달리 60분을 넘는 응답도 보인다. 일주일에 한 번만 하는 수업이기 때문에 한 번에 긴 시간을 원하는 결과라고 보인다.

<표-39> 적절한 수업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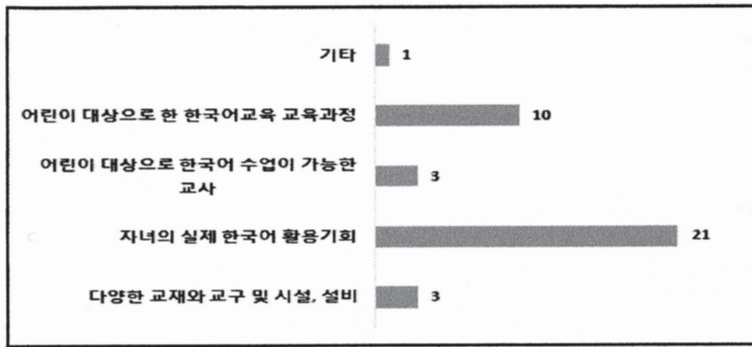
다음에는 학부모가 생각하는 어린이 한국어교육의 목표에 대한 응답이다. 학부모가 생각하는 어린이 한국어교육의 목표에서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와 친밀감 형성이 23명, 한국어에 대한 흥미와 동기유발이 22명, 정체성 확립이 20명이다. 이 세 가지를 주된 한국어교육의 목표로 생각하고 있으며, 언어능력 차원에서는 의사소통을 위한 기초 회화 능력 신장이 10명, 올바른 한국어 발음 습득이 6명이다. 기타를 응답한 학부모는 같은 재일동포 또래 친구와 교류라고 답하였다. 이 결과를 보면 학부모가 어린이 한국어교육에 기대하고 있는 것은 이중언어교육보다 주로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며, 교육을 통하여 자녀의 재일동포로서의 정체성 확립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표-40> 어린이 한국어교육의 목표(중복응답)



다음에는 학부모가 생각하는 어린이 한국어교육의 개선점에 대한 응답 결과이다. 가장 많은 응답은 21명이 응답한 자녀의 실제 한국어 활용 기회이다. 그 다음으로는 어린이 대상으로 한 한국어 교육과정이 10명, 어린이 대상으로 한국어 수업이 가능한 교사와 다양한 교재와 교구 및 시설, 설비가 3명씩이며, 기타가 1명이다. 현지 공립학교에 다니고 집안에서도 대부분이 일본어를 사용하므로 자녀가 한국어를 사용하는 기회가 최대한 많이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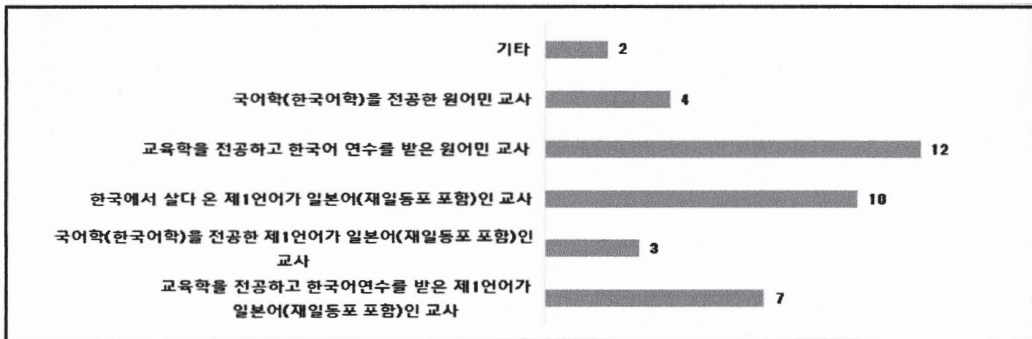
<표-41> 어린이 한국어교육 개선점



다음에는 학부모가 생각하는 적절한 어린이 한국어 교사에 관한 질문에 응답이다. 적절한 교사는 교육학을 전공하고 한국어 연수를 받은 원어민 교사가 12명, 한국에서 살다 온 제1언어가 일본어인 교사가 10명, 교육학을 전공하고 한국어연수를 받은 제1언어가 일본어인 교사가 7명, 국어학(한국어학)을 전공한 원어민 교사가 4명, 국어학(한국어학)을 전공한 제1언어가 일본어인 교사가 3명, 기타가 2명이다.

이 결과에서 학부모가 어린이 한국어 교사로서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은 한국어에 대한 지식보다 교육학 같은 아동 발달을 잘 이해하는 교사를 선호하며, 언어 능력에 대해서는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42> 적절한 한국어 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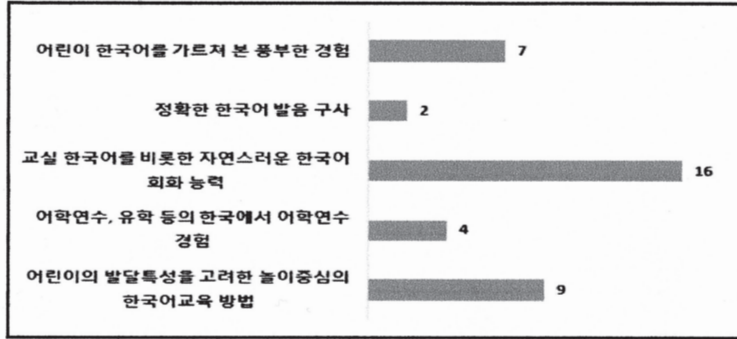


이어서 교사가 갖추어 할 자질에 대한 결과를 보도록 한다. 결과는 교실 한국어를 비롯한 자연스러운 한국어 회화 능력이 16명, 어린이의 발달 특성을 고려한 놀이 중심의 한국어교육 방법이 9명, 어린이 한국어를 가르쳐 본 풍부한 경험이 7명, 어학연수, 유학 등의 한국에서 어학연수 경험이 4명, 정확한 한국어 발음 구사 2명이다. 대부분의 학부모는 한국어 수업시간에 사용하는 자연스러운 한국어 구사 능력이 교사가 갖추어야 하는 자질이라고 응답하였다. 이는 수업에서 교사가 한국어로 수업을

진행하는 것을 원한다고 추측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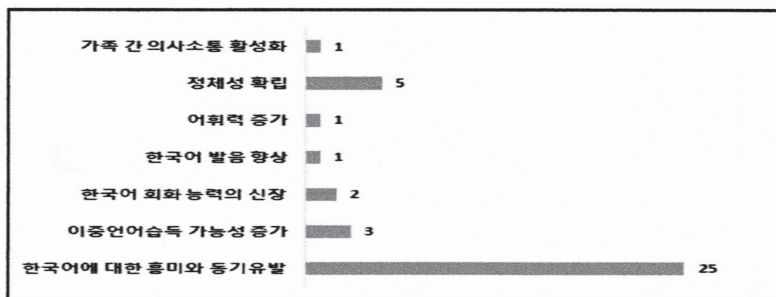
그리고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수업의 교수 능력과 경험이 자연스러운 한국어 구사 능력 다음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정확한 발음 구사를 선택한 학부모는 2명밖에 없어 원어민이나 아니냐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표-43> 교사가 갖추어 할 자질



다음으로 자녀를 어린이 한국어수업에 보내고 나서 느끼는 효과에 관한 질문에 대한 응답이다. 결과는 한국어에 대한 흥미와 동기유발이 25명, 정체성 확립이 5명, 이중언어습득 가능성 증가가 3명, 한국어 회화 능력의 신장이 2명, 가족 간 의사소통 활성화, 어휘력 증가, 한국어 발음 향상이 1명씩이다. 이는 어린이 한국어 수업이 한국에 대한 관심과 정체성 차원에서 큰 효과를 보이거나 한국어 능력이나 이중언어교육 차원에서는 효과가 많이 안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44> 어린이 한국어교육의 효과



학부모 입장에서 자녀의 한국어 수업이 한국어 및 한국 문화에 관심 유발과 한국어 능력이 신장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현지 공립 학교에 다니고 있어서 현지화가 되어가고 있으며 제일 동포로서 한국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서 동시에 한국어 능력도 기를 수 있음을 기대한다. 이 설문조사를 통하여 일주일에 한 번만 하는 수업이 계획적,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현재 수업 개선점을 정리하도록 한다.

5. 결론

제4장에서 살펴본 설문조사 결과를 조태린(2014)에서 제시한 기존의 재외동포용 한국어 교육과정 네 가지 문제점과 대조하여 재일동포 아동 학습자용 한국어교육 현황을 정리하고자 한다.

기존의 재외동포용 한국어 교육과정 문제점	재일동포 아동학습자용 한국어교육 현황
① 계승어로서의 한국어 교육과정이 대상으로 하는 학습자의 유형과 언어 사용 환경은 무엇인가의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 공립 학교에 다니는 아동 학습자 ● 생활에서 한국어를 사용하지 않는 환경에 있다.
② 언어 구사능력 측면에서 계승어로서의 한국어 교육과정의 최종 도달 목표를 어느 수준까지 설정하는가의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언어 구사능력보다 한국어에 대한 흥미유발 ● 의사소통을 위한 기초 회화 능력 신장 ● 한국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친밀감 형성
③ 계승어로서의 한국어 교육과정에서 학습자의 정체성이 어떤 시각에서 어떤 방식으로 반영되는가의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을 키운다. ●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시킨다. ● 한국 역사와 문화 등 민족교육을 통해 모국에 대한 관심을 높인다.
④ 계승어로서의 한국어 교육과정이 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할 때 어떻게 구성되고 어떤 교수법을 적극적으로 적용해야 하는가의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학습자 대상 수업이기 때문에 집중력이 짧아 한 수업이 40~60분으로 구성된다. ● 생활에서 한국어를 사용하는 기회가 많지 않아 수업에서 많은 한국어를 듣고 말하는 교수법을 적용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그 환경을 구축하지 못한다.

조태린(2014)에서 제시한 기존의 재외동포용 한국어 교육과정 문제점에서 현재 어린이 토요 학교에서 학습하는 재일 동포 아동 학습자 현황을 고려하여 계승어로서의 한국어 교육과정의 과제를 제기하고자 한다.

- ① 재일 동포 아동 학습자를 위한 계승어로서의 한국어교육 성격을 분명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 ② 계승어로서의 한국어가 가지는 특성과 아동 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목표 설정과 체제구성, 교수법 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 ③ 재일 동포 아동 학습자가 현지화가 되어가는 현황에 있어 정체성 측면을 고려하여 교육과정의 내용과 체제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어린이 토요일 학교는 공립 소학교에 다니는 재일 동포 아동들이 많아지는 가운데 그들이 한국어를 배울 수 있게 주말에 진행되고 있는 점, 한국 정부에서 운영비 지원, 교재를 무상 공급한다는 점에서 접근성이 좋은 반면 아직 일본에서는 어린이 토요일 학교에서 하는 교육이 체계적으로 진행되어 있지 않다. 본 연구는 어린이 토요일 학교에서 진행하는 한국어 교육을 계승어교육 차원에서 현황을 살펴보았다. 설문조사를 통해 살펴본 현황, 그 결과에서 보이는 과제를 제시했으나 이는 설문조사 결과만을 가지고 제시한 것이며 앞으로 재일 동포 아동을 위한 계승어로서의 한국어교육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주〉

- 1) 박갑수(2007: 368-371), 조항록(2004: 226-227), 김호정(2007:74), 조태린(2004: 230)
- 2) 김중섭(2011:632-633)
- 3) 宋基燦, 2001; 박갑수, 2013
- 4) 金兌恩, 宋基燦, 2012
- 5) 현재 일본에서 운영되고 있는 한글학교는 주로 민단이 운영하고 있으며 명칭이 ‘어린이 토요일 학교’로 되어 있다.
- 6) 民団オリニ土曜学校(2015.6.21) http://www.mindan.org/study/annai_orini.html

〈참고문헌〉

- 강승혜(2013). 계승어로서의 한국어 교육(Korean Education as a Heritage Language)에 대한 소고, 연세대학교 언어정보연구원, 79-105.
- 강희숙(2005). ‘캐나다 거주 한국인의 모국어 교육 실태’, 한국사회언어학회, 1-18.
- 권순희(2009). 이중언어교육의 필요성과 정책 제언, 국어교육학회, 57-115.
- 김경근(2004). 재외한인 민족교육에 대한 평가, 안암교육학회, 109-134.
- 김경근(2007). 재미한인 민족교육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안암교육학회, 57-87.
- 김경근 외(2008). 재외 비정규 한글학교용 표준교육과정 체제 개발 연구 수정 보고서, 교육과학기술부.
- 김대회(2012). 언어 이데올로기와 계승어 교육에 대한 고찰, 국어교육학회, 35-59.
- 김덕룡(2008). 일본에 있어서 민족교육의 현황과 과제, 전남대학교 세계한상문화연구단, 196-200.

- 김정숙(1992). 한국어 교육과정과 교과서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중섭(2011). 재외동포를 위한 한국어교육 연구의 현황과 과제, 이중언어학회, 627-657쪽.
- 김태진(2014). 재미동포 한국어 학습자 정체성 구성 요인과 계승어 교육, 이중언어학회, 99-122.
- 문화체육관광부(2010). 한국어 교육기관 실태 및 수요 조사.
- 박갑수(2004). 재외동포의 한국어교육 현황과 과제,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1-34.
- 박갑수(2007). 재외동포 한국어교육의 오늘과 내일, 이중언어학회, 365-393.
- 박갑수(2011). 재외동포 교육과 민족어 교육의 자세, 태민국학연구원, 9-35.
- 박갑수(2013). 재외동포 교육과 한국어 교육, 도서출판 영락.
- 박소연(2012). 재외동포를 위한 한국어 보급 현황과 발전 방안, 우리말교육현장학회, 269-300.
- 박용구(2009). 제일코리안의 분화하는 정체성에 대한 실증 분석, 한국의국어대학교 일본연구소, 3-23.
- 박채형(2014). 한글학교의 실태와 과제 -미국 플로리다 지역을 중심으로-, 한국통합교육과정학회, 97-115.
- 박혜경(2015). 영어권 계승어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맞춤법 교육 방안 연구 -의식 고양 과제를 활용하여-, 국제한국어교육학회, 117-144.
- 박혜숙(2005). 미국 소재 주말 한글학교에서의 학습과 그 후 10년, 고려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163-185.
- 송재목(2011). 제일동포 총련 조선학교의 교과 내용 변천 -국어과목을 중심으로-, 국제한국어교육학회, 145-178.
- 심영택외 옮김(1995). 언어교수의 기본개념, H.H. Stern지음, 서울대 국어교육연구소.
- 요시다 카즈에(2016). 제일 동포 아동학습자를 위한 계승어로서의 한국어 교육과정 개발 연구 -관서지방 어린이가 토요학교를 대상으로-,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광규(2005). 재외동포를 위한 한국어교육 ; 세계 속 동포들의 현황과 과제, 이중언어학회, 1-10.
- 이민경(2014). <독일 한글학교의 초등반 교육과정 및 실제 학습 현황 -독일 함부르크 한인학교의 사례를 중심으로 ->의 토론문, 국제한국어교육학회, 403-404.
- 이복자 외(2014). 영어권 계승어 학습자의 숙달도별 사회언어학적 특성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언어연구교육원 한국어학당, 246-276.
- 이정란·이혜영(2014). 재외동포 아동을 위한 학습자 중심 한국어 교재 개발, 이중언어학회, 267-290.
- 이정희(2013). 계승어 사용자로서의 재미동포 미취학 아동을 위한 한글학교 유아반 교실 운영 방안, 이중언어학회, 391-424.
- 이정희(2013). 재미 동포 미취학 아동의 계승어로서의 한국어 어휘 발달 연구-미동북부 지역 거주 만 4, 5세 아동을 중심으로-,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09-236.

- 이영형·김정훈(2015). 이르쿠츠크 고려인의 한민족 정체성과 한국에 대한 인식 : 설문조사 내용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시베리아연구, 175-212.
- 임철성(2013).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수업 자가 평가 도구 개발 연구 -미국의 한글학교를 중심으로-, 국어교육학회, 505-534.
- 임철성(2014). 미국의 한국 계승어 교사들의 오류 피드백 의식과 그 활용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과교육연구소, 73-84.
- 장원동(1999). 재미교포 한인들의 역할과 한글학교 교육의 실태연구, 서경대학교 통일문제연구소, 149-160.
- 장은영(2011). 한국어를 배워야 하나요 계승어로서의 한국어 학습에 관한 다중 사례연구, 이중언어학회, 139-164.
- 정병호(2003). 문화적 저항과 교육적 대안 재일 조선학교의 민족 정체성 재생산, 서울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125-155.
- 조태린(2010). 재외 동포에게 한국어가 갖는 의미 -재외 동포 한국어 교육의 방향 정립을 위하여-, 국제한국어교육학회, 193-218.
- 조태린(2011). 국가 브랜드와 한국어 교육 정책: 세종학당 공동 브랜드화 사업을 중심으로, 한글학회, 199-224.
- 조태린(2014). 계승어 교육 측면에서 본 재외동포 한국어 교육과정 분석 -총론을 중심으로-, 이중언어학회, 381-407.
- 조향록(2004).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교육정책의 실제와 과제, 국제한국어교육학회, 199-232.
- 조현용(2010). 재미동포 학생을 위한 외래어 교육 연구, 국제한국어교육학회, 318-332
- 재외동포재단(2010). 재외동포 교육기관현황.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평생교육원(2005).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학,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 한주성(1998). 재중, 재미, 재일동포의 거주지 분포와 직업구성의 공간적 특성, 한국지역지리학회지, 219-234.
- 황은하(2014). 재외동포 아동의 한국어 쓰기 교육을 위한 대화일지 쓰기 사례 연구,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21-247.
- 허소린, 최윤화(2015). 한글학교 교육이 미국 대학 학습자의 한국어 숙달도 및 학습 동기, 태도에 미치는 영향,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87-318.
- 黄淵熙·宋貞熹(2012). 韓國にルーツを持つ子どもの継承語教育の現状と課題-仙台市在住の韓国家庭を対象に-, 東北福祉大学研究紀要(36), 203-215.
- 岸田由美(2003). 在日韓国・朝鮮人教育にみる「公」の境界とその移動, 日本教育学会, 348-359.
- 金由那(2006). 韓国語学習者の日本人と在日韓国人との意識の相違 : 韓国語・韓国・韓国人イメージと学習要因に着目して, 社会言語科学会, 26-42.
- 金由那(2012). 在日韓国人における言語教育-愛知県における名古屋韓国学校を中心に-, 椋山女学園大学教育学部紀要, 221-230.

- 金兌恩・宋基燦(2012). 在日コリアンの民族教育と公共圏：朝鮮学校、公立学校、地域の教育施設での実践事例の比較から, GCOEワーキングペーパー, 次世代研究 79.
- 高橋朋子(2008). 日本生まれのニューカマーの子どもたちへの継承語教育について考える, 大阪大学留学生センター研究論文集 多文化社会と留学生交流(12), 61-74.
- 宋基燦(2001). 在日韓国・朝鮮人の「若い世代」の台頭と民族教育の新しい展開, 京都社会学年報, 237-253.
- 宋貞熹・黄淵熙(2012). 仙台に居住する韓国人児童の継承語支援教育-土曜教室での実践から-, 日本韓国語教育学会, 122-136.
- 竹口智之(2009). 継承語学習を促進する要因は何か, 全国語学教育学会バイリンガリズム研究部会, 53-79.
- 竹口智之(2010). 韓国系民族学校における継承語教育・第二言語教育の促進要因, 関西学院大学 博士学位論文.
- 中島和子(2010). マルチリンガル教育への招待 言語資源としての外国人・日本人青少年者, ひつじ書房.
- 朴校熙(2006). 朝鮮学校(初級部)における「国語教科書」の分析, 全国大学国語教育学会, 37-39.
- 柳美佐(2014). 継承語と民族的アイデンティティの葛藤-在日朝鮮学校の継承語教育をめぐって-, 社会言語学 (14), 25-43.
- 李月順(2010). 継承語と現地語のバイリンガル教育 民族学校の例から, AJALT(33), 29-34.
- 李善雅(2011). 同時バイリンガル幼児の言語習得過程に見られる二つの言語の「混合」と「干渉」, 社会言語科学会, 88-96.
- 梁陽日(2013). 大阪市公立学校における在日韓国・朝鮮人教育の課題と展望 -民族学級の教育運動を手がかりに-, 立命館大学Core ethics: 9, 245-256.
- 尹チョジャ(2011). '外国につながる子どもたちの教育に携わって-ニューカマーの子ども・在日コリアンの子ども・ダブルの子ども', 解放教育(519), 37-44.
- 趙承勲(2012). 韓国語教育のグローバル化の現状, 尚綱学院大学紀要(64), 101-113.
- Cummins, Jim&Danesi, Marcel (1990) HERITAGE LANGUAGES : The Development and Denial of Canada's Linguistic Resources. Lorimer.
- Fishman, J. (2001). 300-plus years of heritage language education in the United States. In J. K. Peyton, D. A. Ranard, & S.McGinnis (Eds.), Heritage languages in America: Preserving a national resource (pp.81-89). Washington, DC & McHenry, IL: Center for Applied Linguistics & Delta Systems.
- Graves, K. ed.(1996) Teachers as Course Developer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Kelleher. A(2008). What is a heritage language? In J. K. Peyton (Eds.), Heritage languages in America: Frequently Asked Questions about Heritage Languages In The United States (pp.3-4). IL: Center for Applied Linguistics &

Delta Systems.

Peyton, J. K., Ranard, D.A., & McGinnis, S. (Eds). (2001). Heritage languages in America: Preserving a national resource. Washington, DC & McHenry, IL: Center for Applied Linguistics & Delta Systems.

Richards, J.C.(1999). The Language Teaching Matrix, Cambridge University Press.

Richards, J.C.(2001). Curriculum Development in Language Teaching.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Valdés, G. (2001). Heritage language students: Profiles and possibilities. In J. K. Peyton, D. A. Ranard, & S. McGinnis (Eds.), Heritage languages in America: Preserving a national resource (pp. 37-77). Washington, DC & McHenry, IL: Center for Applied Linguistics & Delta Systems.

Wiley, T. G. (2001). On defining heritage languages and their speakers. In J. K. Peyton, D. A. Ranard, & S. McGinnis (Eds.), Heritage languages in America: Preserving a national resource (pp. 29-36). Washington, DC & McHenry, IL: Center for Applied Linguistics & Delta Systems

《한국 인터넷 자료》

교육부 <http://www.moe.go.kr/>

문화체육관광부 <http://www.mcst.go.kr/>

외교부 <http://www.mofa.go.kr/>

재외동포재단 <http://www.okf.or.kr/>

《일본인터넷 자료》

京都国際学院 <http://www.kyoto-kokusai.jp/>

厚生労働省 <http://www.mhlw.go.jp/>

金剛学園 <http://www.kongogakuen.ed.jp/>

白頭学院 建国幼・小・中・高等学校 <http://www.keonguk.ac.jp/>

法務省 <http://www.moj.go.jp/>

民団 オリニ土曜学校 http://www.mindan.org/study/annai_orini.html

東京韓国学校 <http://www.tokos.ed.jp/>

《阜号》

在日同胞オリニ韓国語教育に関するアンケート<運営機関用>

今後の在日同胞オリニ韓国語教育の発展のため以下のアンケートにお答えくださいますよう
ようお願い申し上げます。

記入日：2015年 月 日

1. 基礎設問

1-1. 運営機関、管理機関および教室名を記入してください。

(運営機関と管理機関が同一の場合は1つだけ記入してください。)

運営機関：()

管理機関：()

教室名：()

1-2. オリニ韓国語授業を行っている曜日と1ヶ月に行っている授業の回数を記入して
ください。

曜日 回/月

1-3. オリニ韓国語授業を行っている場所はどこですか？

① 民団会館 ② その他 ()

1-4. オリニ韓国語の期間は開講してからどのくらいですか？

開講 年 月から (現在 年 月)

1-5. 開講後、現在まで登録した受講生の人数を記入してください。

年度	受講生数	年度	受講生数
年度	人	年度	人
年度	人	年度	人
年度	人	年度	人
年度	人	年度	人

1-6. 現在の受講生は何名ですか？

小学校	1年生	2年生	3年生	4年生	5年生	6年生
	人	人	人	人	人	人
その他	幼児	中学生	高校生			
	人	人	人			

2. オリニ韓国語授業

2-1. 時間割を記入してください。

(韓国語以外の授業を行っている場合、全ての授業を記入してください)

時間目	時間	科目	内容
1時間目	: ~ :		
2時間目	: ~ :		
3時間目	: ~ :		
4時間目	: ~ :		

2-2. オリニ土曜学校での授業の目的は何ですか？

2-3. オリニ韓国語授業で最も強調している教育内容は何ですか？

- ① 韓国語教育 ② 韓国語教育および韓国文化教育 ③ 帰国後の連携教育
④ その他()

2-4. 受講生と保護者は韓国語教育にどのくらい満足していると思いますか？

- ① とても満足している ② まあまあ満足している ③ 普通だ
④ あまり満足していない ⑤ 満足できていない

2-5. 満足できていない理由は何だと思いますか？

- ① 講義内容 ② 講師の水準 ③ 教育施設 ④ 講義の教材
⑤ その他()

3. 運営財政

- ② 資格はなくても国語（韓国語）専攻の者でなければならない
- ③ 韓国語が第一言語（優勢言語）ならよい。
- ④ 韓国に留学経験がある在日同胞または日本人も構わない
- ⑤ その他()

4-4. 韓国語講師の研修はどのように行っていますか？

- ① 韓国語講師を日本に呼んで研修を実施している
- ② 日本で適切な人を派遣して研修を実施している
- ③ 民団で教えている講師が集まって研修を実施している
- ④ 学校内で、講師同士で研修を実施している
- ⑤ 研修を実施していない
- ⑥ その他()

4-5. 韓国語講師の研修はどのような形態が最も適切だと思いますか？

- ① 韓国語講師を日本に呼んで研修を実施している
- ② 日本で適切な人を派遣して研修を実施している
- ③ 民団で教えている講師が集まって研修を実施している
- ④ 学校内で、講師同士で研修を実施している
- ⑤ 研修を実施していない
- ⑥ その他()

5. 授業運営の改善

5-1. 韓国政府が解決すべき問題の中で最も重要だと思うものは何ですか？

- ① 機関(学校)運営支援 ② 教育課程の運営支援 ③ 講師の研修支援
- ④ 機関(学校)の施設・設備の支援 ⑤ 財政支援の拡大
- ⑥ その他()

5-2. 今後オリニ韓国語教育を活性化するために必要なものは何ですか？

① 教育施設の確保 ② 優秀な講師の確保 ③ 適切な教材の製作

④ 運営費の支援 ⑤ その他()

6. オリニ韓国語教育の実態および活性化に関連して貴方様が平素から感じていることや思っていることがありましたら以下の空欄に記入してください。

アンケートにご協力いただき、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在日同胞オリニ韓国語教育に関するアンケート<講師用>

今後の在日同胞オリニ韓国語教育の発展のため以下のアンケートにお答えくださいますようお願い申し上げます。

1. 基礎設問

1-1. 年齢: ① 20代 ② 30代 ③ 40代 ④ 50代 ⑤ 60代以上

1-2. 性別: ① 男 ② 女

1-3. 第一言語(優勢言語)は何ですか?

① 韓国語 ② 日本語 ③ 韓国語と日本語 ④ その他()

1-4. (第一言語が韓国語でない場合) 韓国語能力試験(TOPIK)は何級を取得しましたか?

① 6級 ② 5級 ③ 4級 ④ 3級 ⑤ 2級 ⑥ 1級 ⑦ なし

1-5. (第一言語が韓国語でない場合) ハングル検定試験(ハン検)は何級を取得しましたか?

① 1級 ② 2級 ③ 準2級 ④ 3級 ⑤ 4級 ⑥ 5級 ⑦ なし

1-6. 学部または大学院での専攻は何ですか?

(複数ある場合は、すべて選択してください)

① 国語国文科(韓国語学科) ② 児童教育学科 ③ 幼児教育学科 ④ その他()

- ① 韓国語だけ使用する。
- ② 韓国語を主に使用し、日本語を補助語として使用する
- ③ 韓国語を50%、日本語を50%で使用する。
- ④ 日本語を主に使用し、韓国語を補助語として使用する
- ⑤ 日本語だけ使用する

2-5. 韓国語の授業はどのように行われていますか？

- ① 韓国語教育が中心だ
- ② 韓国語と韓国文化の平行だ
- ③ 韓国語と韓国語文化以外にも韓国語で他の科目も教えている
- ④ その他()

2-6. 韓国語授業をするにあたって最も適切な授業は週何回ですか？

- ① 週 1回 ② 週 2~3回 ③ 週 4回 以上

2-7. 韓国語授業をするにあたって最も適切な1回の授業時間はどのくらいですか？

- ① 30分 ② 45分 ③ 50分 ④ 60分 ⑤ 80分 ⑥ 90分

3. 受講生

3-1. 受講生は韓国語教育にどのくらい満足していると思いますか？

- ① とても満足している ② まあまあ満足している ③ 普通だ
- ④ あまり満足していない ⑤ 満足できていない

3-2. 満足できていない理由は何だと思いますか？

- ① 講義内容 ② 講師の水準 ③ 教育施設 ④ 講義の教材 ⑤ その他()

4. オリニ韓国語教育の実態および活性化に関して貴方様が平素から感じていることや思っていることがありましたら以下の空欄に記入してください。

5. オリニ韓国語教育機関に関する基本事項

5-1. 機関(学校)名:

5-2. 教室名:

5-3. 記入日：2015年 月 日

アンケートにご協力いただき、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在日同胞オリニ韓国語教育に関するアンケート<保護者用>

今後の在日同胞オリニ韓国語教育の発展のため以下のアンケートにお答えくださいますよう
ようお願い申し上げます。

記入日：2015年 月 日

機関(学校)名： ()

教室名： ()

1. 基礎設問

1-1.

貴方様		お子様	
年齢：	歳	年齢	歳
第一言語		第一言語	
在日同胞 何世	世	在日同胞 何世	世

1-2. オリニ韓国語の授業をいつから受けていますか？ _____年 _____月～現在

1-3. 家庭内の会話で使用する言語は何ですか？

- ①日本語だけ使用する
- ②ほぼ日本語を使用し、たまに韓国語の単語が混じる
- ③主に日本語を使用し、たまに韓国語を使用する
- ④日本語を50%、韓国語を50%で使用する
- ⑤主に韓国語を使用し、たまに日本語を使用する
- ⑥ほぼ韓国語を使用し、たまに日本語の単語が混じる

⑦韓国語だけを使用する

1-4. お子様の韓国語能力で可能のものをすべて選んでください。

- ①名前が書ける ②ハングルが書ける ③ハングルの聞いて書き取れる
④文章が書ける ⑤作文が書ける ⑥あいさつができる ⑦自己紹介ができる
⑧簡単な質問に答えられる ⑨ネイティブと会話できる
⑩ネイティブレベルで発音できる ⑪ゆっくりハングルを読める
⑫流暢にハングルを読める ⑬簡単な文章を読んで理解できる
⑭絵本や童話の本などを読んで理解できる

2. オリニ土曜学校の韓国語授業についてお答えください。

2-1. お子様は韓国語を学習する必要性についてどうお考えですか？

- ①全く必要ない ②あまり必要ない ③普通だ
④まあまあ必要だ ⑤とても必要だ

2-2. (2-1. ①②)お子様の韓国語学習が必要ないと考える理由は何ですか？

2-3. (2-1. ③④⑤)お子様が韓国語を学習することが必要だと思う理由は何ですか？

- ①日本語と韓国語のバイリンガル教育 ②韓国語と韓国文化の理解
③アイデンティティの確立 ④家族や親戚との意思疎通
⑤その他 ()

2-4. お子様はオリニ韓国語授業を受講してから韓国語能力がどうなりましたか？

- ①とても向上された ②少し向上された ③変わらない
④少し低下した ⑤とても低下した

2-5. 韓国語の授業にあたって最も適切な授業回数は週何回ですか？

- ①週 1回 ②週 2~3回 ③週 4回 以上

2-6. 韓国語の授業にあたって最も適切な1回の授業時間はどのくらいですか？

- ①30分 ②45分 ③50分 ④60分 ⑤80分 ⑥90分

④オリニを対象とした韓国語の教育課程

⑤その他 ()

2-11. オリニ韓国語教育で最も適切なオリニ韓国語講師はどのような人だと思いますか？

①教育学を専攻し、韓国語教育の研修を受けた第1言語が日本語(在日同胞を含む)の講師

②国語学(韓国語学)を専攻した第1言語が日本語(在日同胞を含む)の講師

③韓国で生活していた第1言語が日本語(在日同胞を含む)の講師

④教育学を専攻し、韓国語教育の研修を受けた韓国語のネイティブ講師

⑤国語学(韓国語学)を専攻した韓国語のネイティブ講師

⑥その他 ()

2-12. オリニ韓国語講師に必要な資質の中で最も重要だと思うものは何ですか？

①子どもの発達特性を考慮した遊び中心の韓国語教育方法

②語学研修などの韓国での研修経験

③教室内で使用する韓国語をはじめとした自然な韓国語会話力

④正確な韓国語発音の駆使

⑤オリニを対象とした韓国語授業の豊富な経験

2-13. 今までの経験に鑑みて、オリニ韓国語教育の最も大きな効果は何ですか？

①韓国語に対する興味と動機誘発 ②バイリンガルの可能性の増加

③韓国語の会話能力の伸長 ④韓国語の発音向上 ⑤語彙力の増加

⑥アイデンティティの確立 ⑦家族間の意思疎通の活性化

3. オリニ韓国語教育に対する問題点や改善点に関して保護者の方が平素から感じていることや思っていることがありましたら以下の空欄に記入してください。

アンケートにご協力いただき、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在外同胞児童学習者のための継承語としての韓国語教育の現状と課題

小川一枝
慶熙大学校

「在外同胞」とは国籍を問わず一時滞在者、永住者、市民権の所有者、移民二世、三世等の外国に居住する朝鮮半島にルーツがある人を指す言葉である。その中で一時滞在者を除いた在外同胞のための韓国語教育は「アイデンティティの確立」、「母国とのつながり」、「現地社会への同化」、「民族の資産管理」、「世界市民教育および韓国語文化のグローバル化」に目的と必要性があるといわれている。

このような目的と必要性による在外同胞のための韓国語教育に関連した研究は韓国国内で進められているのにもかかわらず、在日同胞のための韓国語教育についての研究は人口に対して論文が顕著に少ない。特に近年では在日同胞の学齢期児童の約86%が日本の公立学校に通っており、そのほとんど日本語を主に使用し、韓国語と韓国文化に触れる機会が多くない。김중섭(2011:628)では在外同胞の移住暦が長くなるほど移民一世とは異なり、二世・三世の在外同胞は韓国語の能力が落ちると指摘した。現在、在日同胞は四、五世であり、現地社会に同化しつつある。そのため、在日同胞のための韓国語教育の重要性がより高まってきている。また、オールドカマーとニューカマー、日本国籍を持つ在日同胞など、在日同胞としてのアイデンティティを確立するのにも、形態が多様化かつ複雑化しており、在日同胞がアイデンティティを保つことは簡単ではなくなっている。

児童のための韓国語教育は挑戦学校、韓国学校、民族学級、オリニ土曜学校(ハングル学校)で主に行われている。김경근·고형일·황기우(2004)によるとハングル学校は正規教育機関でないにもかかわらず現地の公立学校に通っている在日同胞の児童たちが韓国語を学べるように週末に授業が行われている点、韓国政府から運営費の支援、教材の無償提供から接近性が高い教育機関だと評価されている。ほとんどの在日同胞の児童たちが一般の公立学校に通っているという現実に適した形態であるオリニ土曜学校は今後、重要な役割を担うことになることは明白なことである。本稿では全国のオリニ土曜学校の中で在日同胞が多い関西地方を対象に継承語としての韓国語教育の現況を調べ、課題を提示することを目的とする。

現在、オリニ土曜学校で学習している在日同胞の児童たちの現状を考慮し、継承語としての韓国語教育の課題を次のようにまとめた。

- ① 在日同胞の児童学習者のための継承語としての韓国語教育の性格を明らかにすることが必要である。

② 継承語としての韓国語が持つ特性と児童学習者の特性を考慮した教育目標の設定と体制構成、教授法などに関する研究が必要である。

③ 在日同胞の児童学習者が現地化しつつある現状で、アイデンティティを考慮して教育課程の内容と体系を構成する必要がある。

アンケートを通して現況を把握し、その課題の提示を行ったが、あくまでアンケート調査結果だけのものであり、今後も現地化が進む在日同胞の児童学習者のための継承語としての韓国語教育の研究が必要である。さらに継承語としての韓国語教育の具体的な内容に重きを置いた研究が望まれる。